

단국대학교 2020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가이드답안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09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Ⅰ [독서] 영역의 성취 기준 (4)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작문] 영역 성취 기준 (9)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 『국어』Ⅱ [작문] 영역 성취 기준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능력은 사실적 독해를 기반으로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능력이 된다. 이 독해 능력을 기반으로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문화』 교과와 성취 기준 (3) ‘문화와 사회’, “(다)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화 및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의 학습 경험을 통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 제시문 [가]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관점’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한 글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관점’의 기본 개념을 인용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출제진에서 추가 집필하였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오는 ‘축제’의 특징과 축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설명한 글로, 출제진에서 추가 집필하였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창의적 독해’ 능력 신장을 위해 활용한 ‘당신의 틀로 누군가를 가두지 마라’라는 읽기 자료이다.

□ 자료 출처

- [가] : 강운선 외(2013),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16쪽. (7행 이하 출제진 추가 집필)
- [나] : 신형민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24~25쪽. (18행 이하 출제진 추가 집필)
- [다] : 박영목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226~227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관점’이다. 이것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

- 문항 해설 2 (5점)
주제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제시문에 근거하여 1)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대한 정의와 2)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적용되는 방식을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가]의 주제어 '관점'을 중심으로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나]는 축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축제는 특별한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기 위한 공동체의 행사로서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속이 강화된다. 2) 축제는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축제는 권위적인 권력이나 체제에 대한 도전의 역할을 한다. [가]의 주제어인 '관점'을 중심으로 위 세 가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가]의 주제어 '관점'을 중심으로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다]는 장애인 만화가인 화자의 입장에서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다음의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1) 장애인 만화가가 장애인의 아픔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하여, 화자는 장애는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상처이지 사람들의 보편적 관심사가 아니므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2) 개인적인 공간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에 나와 활발히 활동하라는 입장에 대하여, 화자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화자는 타자의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생활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다. [가]의 주제어인 '관점'을 중심으로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관점'이다. [가]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개념을 정의한다. 거시적 관점은 대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미시적 관점은 부분 혹은 개체의 각도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관점들은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2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축제를 다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첫째, 축제는 공동체의 특별한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행해진다. 둘째, 축제는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다. 셋째, 축제는 권위적인 체제에 대한 도전의 기능을 갖는다. [다]는 화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들의 관점을 논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하여, 화자는 자신의 장애보다 더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내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관점을 밝힌다. 화자에게 세상에 나와 더 활발하게 활동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화자는 개인으로서 은둔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주체적 권리가 있으며, 이런 권리는 타인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관점을 밝힌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09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Ⅰ 교과와 [독서] 영역 성취 기준 (4)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작문] 영역 성취 기준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국어』Ⅱ 교과와 [독서] 영역 성취 기준 (6)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다.’, [작문] 영역 성취 기준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을 맺고 있다. [가]에 제시한 두 자료의 중심 내용과 [나]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에 대해 논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제시문 [가]는 두 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자료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창의적 독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유기체로서의 사회를 ‘약육강식’의 논리로 설명하고자 한 글이다. 뒤의 자료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보조 자료에서 선별한 것으로, 경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찾아낼 수 있는 글이다.
- 제시문 [나]는 [가]와 연관된 글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창의적 독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글이다. 생물체의 자연에 대한 적응 방식이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다윈의 견해가 들어있다.
- 제시문 [다]는 신문 자료에서 선별한 것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09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의 내용 체계 ‘생명·성·가족 윤리’ 영역의 주제인 ‘생명과학과 윤리’에서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유형의 글 가운데 하나이다. [다]에 제시한 문제 상황은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학사. 242쪽. (출제진 재구성)
강준만(2015),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3, 인물과 사상사. 64~66쪽.
- [나] :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학사. 242~245쪽.
- [다] : 『메디게이트뉴스』, 2018. 12. 14, 「배진건의 칼럼」.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0점)
[가]와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함
-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0점)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에 대해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와 [나] 각각의 입장에서 [다]을 논술한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가]와 [나]의 두 입장에서 논술하였으면 11~20점
- [가]와 [나] 중 하나의 입장에서 논술하였으면 1~10점
- [가]와 [나] 어느 입장에서든 논술하지 못하였으면 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나]는 사회와 자연의 진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가]는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에 따라 약한 동물은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것이다. [나]는 생물체는 우열이 없으며,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따른 적합한 선택을 한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종의 보존에 중요한 것은 우월성이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이다. 유전자 조작은 자연적인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고 원하는 조합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는 유전자 조작에 찬성하고 [나]는 반대할 것이다. [가]는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강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성 인자를 선택하여 우월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자연법칙에 부합하며 종의 보존에도 유리하다. [나]는 모든 생물체는 우열이 없고, 진화에는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고 적합한 선택을 한 자들이다. 따라서 인위적 조작에 의한 우월성의 선택은 옳지 않으며 다양성의 증가가 더 중요하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09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문화』 교과 ‘사회·문화 현상 탐구’ 영역의 성취 기준 (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 태도와 연구자의 윤리를 이해한다.’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Ⅰ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독서와 문법』 교과와 성취 기준 (25)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독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를 통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제시문의 주요 내용 및 성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과 탐구 방법을 제시한 교과서의 바탕글로,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서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탐구 방법을 종합한 총체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제시문 [나]는 고정희의 ‘우리 동네 구자명 씨’와 박완서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작품이다. 두 작품에서는 [가]에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 제시문 [다]에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대상으로 삼은 ‘성 불평등’문제를 수치로 나타낸 ‘세계 성 격차 지수’를 제시하였다.
- 제시문 [라]에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및 신문 매체 등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성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 자료 출처

- [가] : 신형민 외(2013),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16쪽. (출제진 재구성)
- [나]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조정래 외(2013), 『고등학교 문학』, 해냄에듀. 70~71쪽.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한철우 외(2013),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77쪽.
- [다] :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2018), 「The World Economic Forum」
구정화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52쪽. (출제진 재구성)
- [라] : 『중앙일보』, 2019. 3. 7,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1% … 세계 평균 크게 밑돌아」
이진석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51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2010 여성관리자 패널 조사』
통계청(2000~2015), 『경제활동인구연보(2000~2015)』
『한겨레』, 2019. 3. 21, 「남자는 영웅, 여자는 돌봄 담당?…“성차별 미디어” 감시할게요”」
『서울신문』, 2018. 1. 8, 「섬뜩한 외모지상주의 … 여성의 키는 ‘스펙’」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나]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0점)

[나]와 [다]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나]와 [다]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가]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사회 과학에서의 간학문적 접근을 설명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와 여성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즉 가정에서 여성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가사를 책임지는 등 남성과는 차별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는다. 이는 [다]가 설명하는 성 불평등을 초래한다. 즉 2018년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는 149개국 중 115위를 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라]는 [다]의 사례를 제시한다. 즉 국회의원의 경우 여성이 매우 적고, 회사 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고, 승진 기회가 적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남성보다 적고, 미디어에서는 왜곡된 여성상을 표현하고, 여성은 외모가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사회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 금지는 물론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경제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은 물론 개인 각자가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갖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